

## ＂친환경차 경쟁력 확보 위해 규제완화•정책지원 시급＂

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세계 각국 ‘탄소중립’ 잰걸음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환 속도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 ＂규제의 질，학회주도 평가 필요＂

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확대로 환경 규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은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．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순수 전기 차，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급 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간 시장 선점 을 위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． 이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 술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 부의 규제개선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 다는 조언이 나왔다．〈관련기사 4•5면〉
이종욱한국모빌리티학회회장은지 난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 서 열린＇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포 럼’에서 ‘국내 기업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＇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면서 이같 이강조했다．

이종욱 회장은＂전문가들이 규제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입법 의 양보다 질로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 해야 한다＂며＂시민단체보다 질적 수준 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학 회 주도 평가가필요하다＂고강조했다． 세계 완성차 업체는 물론 이와 관련된 부품업체의 경쟁에 따른 기술력 강화


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 린 ‘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포럼’에 참석 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．｜슨진졍ㄱㄱ깆 son＠

로 친환경차는 승용부터 상용차까지 2019년부터 매년 $20 \%$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．다만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틀 에서 벗어날 수 없는게 현실이다．

이 회장은＂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성쟁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 다＂며＂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이해하 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규제의 질을 평가하가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 축해야한다＂고 말했다．
특히 국내 친환경차 시장이 안정적 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의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는 주장이 나왔다．
＇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

충전인프라 및 전기차 보급정책＇을 주 제로강연에나선김철환（주）이노싱크컨 설팅상무는＂（탄소중립에）절대적인시 기는 없다＂며＂반드시 2050년에 탄소중 립을 달성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 제 기하며이를 절대적인명제로받아들일 필요는 없다＂고 주장했다．
김 상무는 향후 10 년은 제반 여건의 불확실성 및자동차산업 전환기 대응의 관점에서 각별한 정책이필요한 시기로 봤다．이를 위해 거주지 중심의 완속•심 야 충전이 가능한 충전인프라 구조를 갖추고 기초 충전 인프라를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．김 상무는 ＂중전인프라 부족이 전기차 보급 속도 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 규모 투자•구축 필요하다＂고 언급했다． 권낙현 H 2 코리아 대외협력센터장 은 수소 생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글 로벌 산업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 하며，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마 련이 시급하다고강조했다．
권 센터장은＂우리나라가 수소차 생 태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 술력을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 다＂며＂유럽을 중심으로 승용차 뿐 아 니라 수소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＂고 말했다．

〈2면에 계속〉
／o양엉군 ㄱㅣㅏ ysw＠metroseoul．co．kr

## ＂불확실성 커진 경기，생존 방향 찾아야＂

최태원 SK그룹 회장 美서 간담회 국내투자 늘리려면 해외투자가 필수 정부 정책지원•통상외교 강화 주문
＂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늘리 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새 로운 기술 개발이 해답이다．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 서 기업들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．＂
미국 출장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 （사진）은 21일（현지시간）워싱턴DC 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．
최회장은 간담회에서＂과거처럼 이 익 극대화 형태로 가는，효율성을 쫓는 것보다 안전을 택하고 있다＂며＂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도 최소한생존하는 방향을 찾는 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


덕목＂이라고 밝혔다． 그는＂제일 무서운 것은 불안，언노운（u nknown）＂이라며＂여 러 시나리오에 대비 한 계획을 세우고 있 다．그중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군 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있다＂고 설 명했다．

미국이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（IR A）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제정하며 핵 심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상 황이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 대해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．
그는＂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결국 세계가 디커플링（탈동조화）하는 것으 로그속도와 깊이，그리고 어느 부분을

더 갆조하느냐에 따라 우리한테 리스 크가 더 클 수도 또는 기회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＂고 주장했다．
이어 막대한 해외 투자로 국내투자 를 소홀히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＂해 외 환율이 올라서 2030년 70조원 된 다．전체 투자 계획이었던 230 조원 중 나머지는 국내 투자다．국내 투자가 살 아남기 위해서해외 투자가 필수다．해 외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내부화 해야 계속 국내 투자가 늘어난다＂고 강 조했다．
최회장은＂외국에나가 투자하는 게 솔직히 위험하다＂며＂양국 정상 차원에 서 투자를 보장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 결해주는 게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＂ 며 국내 정부에 통상외교를 강화해달 라고 주문했다．／최봋나 기자 vitna＠

## （1） m －커버스토리



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$14.90 \mathrm{P}(0.63 \%$ ）내린 2332.31 노 마감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 도 KB 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．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$3.48 \mathrm{p}(0.46 \%)$ 내린 751．41에，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.5 원 오른 1409.7 원에 거래를 마쳤다．

## FOMC 쇼크에 증시 털썩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

## 글로벌 증시 출렁

美 연준 3연속 자이언트스텝
파월，경기침체 가능성 시사 ＂물가 잡힐때까지 인하 없어＂ 고강도 긴축의지에 투심 냉각

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（물가 상승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미국이 이례적으 로 3 번 연속 자이언트스텝（기준금 리 $0.75 \%$ 포인트 인상）에 나섰다．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가 박 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 했다．
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.90 포인트（ $0.63 \%$ ）하락한 2332．31에，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 일 대비3．48포인트（ $0.46 \%$ ）하락한 751.41 에 장을 마쳤다．9월 연방공 개시장위원회 $(\mathrm{FOMC})$ 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 라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다．
미 연방준비제도（Fed•연준）는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 로 보인다．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 표（dot plot）에서 올해 말 금리 수 준을 $4.4 \%$ 로 올려잡았다． $4.4 \%$ 를 맞추려면 현재 기준금리 3．00～ $3.25 \%$ 에서 $1.25 \%$ 포인트의 추가 인 상이 필요하다．11월과 12월 앞으로 남은 두번의 FOMC에서 빅스텝 （ $0.5 \%$ 포인트 인상）과 자이언트스 텝이 각각 단행될 것이란 분석이다．
제롬 파월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 견에서＂어느시점에서는 금리 인상

속도를 늦춰야한다＂면서도＂인플레 이션 $2 \%$ 목표치 달성 때까진 멈추 지 않을 것＂이라고 말했다．또＂연착 륙 가능성이 줄었다＂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다．
연준의 고강도 긴축 의지가 재확 인되면서，국내 기준금리 연쇄상승 도 전망되고 있다．한미 금리 격차 가 크게 벌어질 경우 원화 가치 하 락，외국인 자금 유출，물가 상승 압 력 심화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 커지기 때문이다．

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 봤다．단，증시 하방 경직성은 견조 한 상태라고 밝혔다．

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＂인플 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해결되지 않 는 이상 증시 상단이 제한되는 박스 권 흐름을 전망한다＂며＂또 확정 실 적 기준코스피 지수의 후행 주가순 자산비율 $(\mathrm{PBR})$ 은 0.9 배 수준으로 지난 7 월 4일 연저점（장중 2276．63）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 한다＂고 분석했다．

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 위원은＂국내증시는 변동성을 줄이 는 방향으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겠으나，추가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＂며＂지금 수준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할 것＂이라고 말했다．

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11억원，2831억원 을 순매도했다．개인은 3138 억원을 나홀로 순매수해 지수 하락을 방어 했다．
／박미경기자 mikyung96＠

－이재명＂시행령통치•초부자감세 당 차원서 적극 대응＂／사진뉴시스
－野신정훈＂尹정부，초등학생•임산부 농산물 지원예산 전액삭감＂
— 한덕수，‘신문 총리’ 논란에＂잘못 답
변 $\cdots$ 죄송하다＂
— 국방차관，주한미군 대만 이동에＂아
직 그런 논의 없었다＂

－尹 대통령 지지율 $32 \%$ ，한 달 째 동률 부정 60\％
－경찰청장，이스타항공 부실수사 지적 에＂파악한 것과 달라＂

